

EU 예산안 합의와 폴란드

□ EU 예산안(2007~2013) 최종 합의

- 2005년 12월 17일자로 총 8,620억 유로에 달하는 EU의 2007~2013년 예산안이 오랜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음.
- 금년 6월 영국은 제안된 예산규모인 총 8,716억 유로에서 8,467억 유로로 삭감을 주장(이에 따라 2004년 EU 신규가입 10개국에 대한 지원예산에서 약 140억 유로 삭감)해 왔으나, EU 신규가입 10개국 및 이들을 지지하는 독일, 프랑스의 반대로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어 왔음.

□ 폴란드의 EU 예산안(2007~2013) 관련 사항

- 폴란드는 동 예산안에서 596억 5,600만 유로의 구조조정기금(EU 전체 구조조정기금의 20%)을 포함하여 총 91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수령할 예정임.
- 예산안에 따라 폴란드는 매년 600억 즐로티¹⁾를 수령하는 대신, 30억 유로를 납부하게 됨.

1) 폴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, 2005년 12월 21일 현재, 1 USD = 3.22 Zloty임.

□ 예산안 통과 관련 폴란드의 입장과 평가

- 금번 2007~2013 EU 예산안의 통과는 독일 및 프랑스의 지원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신규 EU 가입국들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, 앞으로 폴란드의 EU 내 위상과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
폴란드주재원 및
전문연구원 최은경 (☎3779-6665) 제공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